RESEARCH ARTICLE

베트남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 방안

Phan Hoàng Tri Thức

Khoa Ngôn ngữ và Văn hoá phương Đông, Trường Đại học Ngoại ngữ-Tin học TP.HCM

thucpht@huflit.edu.vn

요약 –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발음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최소한 학습자 모국어의 자음-모음 체계와 음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학습자 모국어의 음성적인 특성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키워드 – 베트남 학습자, 한국어 자음-모음, 자음, 모음, 음운 변동, 발음 교육

I. 서론

본 논문은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의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최근에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이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어학원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체계적인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은 한국어 능력을 키우는 바탕이 되며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모두 관련이 되는 것이다. 즉, 언어 발달의 기능을 살펴보면 말하기에서는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해야 하는 것이고, 듣기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를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음운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 자음-모음의 구조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읽기에서는 글자를 이야기로 전환 하는 단계를 거치며, 쓰기에서는 문자로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어 자음-모음 읽기와 한국어 자음-모음 쓰기가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장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초기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이란 한국어를 표기하는 수단인 한글의 자음과 모음, 음절 구성 방식 등을 익혀 바르게 읽고 쓰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한국어 전공 학습자가 한국어 학 습 초기에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익히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정확 한 자음-모음과 발음교육은 한국어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기반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서 자음-모음과 발음교육은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교 육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학습자가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을 처음 배울 때 어떤 음소를 발음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육 (교재)의 실태, 그리고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모음과 음운 변동의 교육 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활용 현황을 살펴보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자음 - 모음 변동의 교육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음과 자음 대조

학습자에게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언어인 한국어 음소의 특징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때는 단순히 한국어만을 예로 들기 보다는 이에 해당되는 예를 상황에 따라 제시하면서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어 음소의 특징과 대조하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성공적인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외국어를 교육하는 교수자가 학습자들의 모국어와 목표 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이를 교수 학습에 이용하면 언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즉, 두 언어 간에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이를 실제 언어 교육에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A.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소체계대조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자음은 모두 19 개로 되어 있다. 자음을 분류할 때에 장애가 어디에서 일어나는 지, 그리고 장애가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지에 따라 나눈다. 또한 발성유형의 측면에서 평음, 경음, 격음의 세 종류의 발성유형을 (표 1), 공명음이 비음, 유음 두 종류의 발성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표 2).

표 1: 발성유형

평음	ㄱ	ㄷ	ㅂ	ㅅ	ㅈ
경음	ㄲ	ㄸ	ㅃ	ㅆ	ㅉ
격음	ㅋ	ㅌ	ㅍ		ㅊ

표 2: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ㅎ
유음	ㄹ			

반면에 베트남어의 자음은 (b, c, d, đ, g, h, k, l, m, n, p, q, r, s, t, v, x) 17 개가 있다. 베트남 자음은 두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성(voiced sound)와 무성(voiceless sound)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조음 위치의 분류는 양순음, 순 치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으로 나눌 수 있다.

표 3: 베트남어 음소

유성	b , d , đ , g , v , m , n , l , r
무성	c , p , t , k , q , s , x , h

그리고 두 개의 단자음을 합쳐서 하나의 복합자음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며, 베트남어에는 ph, th, tr, gi, ch, nh, ng, kh, gh, ngh, qu 등 11 개의 복합자음이 있다.

분석을 살펴 대조하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발성유형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난 다. 한국어 자음은 '평음, 경음, 격음'의 세 종류의 발성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베트남어의 자음은 '유성, 무성' 두 종류의 발성 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발성유형이 두 언어의 자음 발음의 특징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 한국어와 베트남어 음소체계 대조

평음	ㄱ [g]	ㄷ [d]	ㅂ [b]	ㅅ [s]	ㅈ [ch]
경음	ㄲ [k]	ㄸ [t]	ㅃ [p]	ㅆ [x]	ㅉ [/]
격음	ㅋ [kh]	ㅌ [th]	ㅍ [ph]		ㅊ [tr]
비음	ㅁ [m]	ㄴ [n]	ㅇ [ng]	ㅎ [h]	
유음	ㄹ [r]				

나아가 한국어 자음은 베트남어 자음과 대조를 해 보자면 비슷한 점이 있다. 따라서 초기단계에서 학습자가 자음-모음과 발음을 학습할 때 베트남어와 비슷한 발음을 찾는 경향이 있다. 발음 연습 하는 경우에 'ㄱ, ㄲ, ㅂ, ㅃ, ㄷ, ㄸ, ㅅ, ㅈ, ㅉ, ㅎ'과 같은 자음은 베트남 학습자에게 'ㄱ'은 /g/로, 'ㄲ'은 /k/로, 'ㅂ'은 /b/로, 'ㅃ'은 /p/로, 'ㄷ'은 /d/로, 'ㄸ'은 /t/로, 'ㅅ'은 /s/로, 'ㅈ'은 /j/, 'ㅉ'은 /c/, 'ㅎ'은 /h/로 들릴 수 있어서 각 해당 자음은 [ㄱ]→[g], [ㄲ]→[k], [ㅂ]→[b], [ㅃ]→[p], [ㄷ]→[d], [ㄸ]→[t], [ㅅ]→[s], [ㅈ]→[ch]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표준 발음법에 따라 '고기', '바빠요'는 베트남인 학습자가 그 단어들의 소리를 습득할 때 /gogi/, /bapayo/로 들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베트남 현장에 발음 학습에 있어서 'ㅋ'은 /kh/로, 'ㅍ'은 /ph/로, 'ㅌ'은 /th/ 등으로 표기될 수 있다.

B.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모음 대조

"한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8 개와 이중모음 13 개로 되어 있다. 한국어 단모음은 'ㅏ, ㅓ, ㅗ, ㅜ, ㅡ, ㅣ, ㅔ, ㅐ'가 있으며 이중모음은 'ㅑ, ㅕ, ㅛ, ㅠ, ㅖ, ㅒ, ㅘ, ㅝ, ㅟ, ㅢ 새, ㅞ, ㅙ'가 있다.

반면에 베트남어의 모음은 **단모음** (A, Ă, Â, E, Ê, I/Y, O, Ô, ơ, U, ư), **이중모음** (AI, AO, AU, ÂU, AY, ÂY, EO, ÊU, IA, IÊ/YÊ, IU, OA, OĂ, OE, OI, ÔI, ơI, OO, ÔÔ, UA, UĂ, UÂ, ưA, UÊ, UI, ưI, UO, UÔ, Uơ, ươ, ưU, UY), **삼중모음** (IÊU/YÊU, OAI, OAO, OAY, OEO, UAO, UÂY, UÔI, ươI, ươU, UYA, UYÊ, UYU) 3 개로 되어 있다.

한국 모음은 삼중모음을 없지만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베트남의 모음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모음이 있고 베트남 모음 음소 체계에 없는 모음도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5: 모음 대조

단모음	ㅏ (a)	ㅓ (o)	ㅗ (ô)	ㅜ (u)	ㅡ (ư)	ㅣ (i/y)	ㅐ (e)	ㅔ (ê)					
이중 모음	ㅑ (?)	ㅕ (?)	ㅛ (?)	ㅠ (?)	ㅒ (ye)	ㅖ (ie)	ㅘ (oa)	ㅝ (ươ)	ㅟ (ui)	ㅚ (oe)	ㅙ (uyê)	ㅞ (uê)	ㅢ (ưi)

위 <표 3>를 살펴보면, 한국어 단모음의 음가는 베트남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즉 ㅏ[a], ㅗ[o], ㅜ[u], ㅡ [ư], ㅣ[i], ㅔ[e] 의 들이다. 그러나 이중모음 경우에는 'ㅑ, ㅕ, ㅛ, ㅠ'는 사용되지 않는 음소임을 확인 하였는데도 불구하고'ㅒ,ㅖ,ㅘ, ㅝ, ㅟ, ㅢ'와 같은 이중모음은 쉽게 습득하고 학습할 수 있다.

다만, 단모음인 'ㅔ' 모음은 단 모음'ㅐ' 모음와, 이중모음인 'ㅖ' 모음는 이중모음인 'ㅒ' 모음과 구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중모음 'ㅚ' 모음은 서로 '새' 모음, 'ㅞ' 모음와 구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베트남인 학습자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한국어 모음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단모음인 'ㅏ, ㅗ, ㅜ, ㅡ, ㅣ, ㅔ', 또는 이중모음인 'ㅒ,ㅖ, ㅘ, ㅝ, ㅟ, ㅢ'와 같은 모음들이다.

C. 한국어 음운변동 교육의 필요성

음운변동이란 원래 음소가 어떠한 음운론적 환경에 의해 제 음가를 잃어버리고 다른 음으로 소리 나는 현상 을 의미한다. 한국어 음운변동은 복잡한데다가, 대부분의 경우 음운변동의 영향을 입기 전의 형태를 그대로 고 정하여 적기 때문에 철자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히 발음하기 위해서는 자음과 모음 들의 개별 음운이나 음절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갖가지 음운변동을 파악도 해야만 한다 (강현화 외, 2014).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어의 음운변동은 매우 복잡하고 대부분의 경우 음운변동이 일어나기 전의 형태를 그 대로 적기 때문에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가 많은 이유로 외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학습 초기에 이러한 표기 와 발음의 차이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발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한국어의 음운변동에 익숙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자연스럽 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강현화 외(2014)에서는 받아쓰기를 자주 하고 중요한 단어는 여러 번 배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어 발음교육의 초기 과정에서 학습자들 에게 교육이 필요한 음운변동은 중요하며 베트남에 한국어 전공학습자가 있어 그들이 초급 단계에서부터 한국어 음운변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각 음운변이를 '형식화'하고, 예를 통해 학습자를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I. 한국어 교재 교육의 현황

한국어 교재가 많이 출판되어 있지만, 올바른 교재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어 교재 한 권은 한국어 자음-모음과 한국어 발음을 배우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려면 먼저 자음-모음과 발음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한글 자음-모음은 한국어 교육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 내용으로, 교재에 따라 자음-모음을 제시하는 순서와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또한, 발음 교육은 가르치는 순서, 음운 표기 방법 등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교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한국어 교재의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 내용을 살펴 보려고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한국에서 출판되어 있는 한국어 교재가 많은데 이화여대 (1998), 서울대 (2000), 경희대 (2004), 한국국제교류재단 (2008) 을 조사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 교재들을 살펴본 이유는 베트남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교재이거나 지금까지 사용되는 교재이기 때문이다.

기존 한국어 교재를 보면 발음 교육을 위한 음운학적 현상 규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교과서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재는 초급자를 위한 교재의 제 한 권이거나, 처음에 모음, 자음, 음절구조 등 기본적인 발음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한국어 발음과 본문에서 음운현상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한국어 발음을 초기 단계부터 심도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한국어 발음 교재를 출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해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교재를 출판하는 것은 비원어민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기존 한국어 교재에서 알파벳과 발음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았다. 다음은 자음-모음과 음운변동의 교육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V.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 방안

장에서는 베트남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에 있어서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 방안에 대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자음을 반드시 모음에 붙여 써야 그 소리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음의 발음보다는 모음의 발음을 먼저 가르칠 것이다. 모음의 발음을 먼저 가르치는 것도 하나의 교육 방법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한국어 자음의 발음교육에 대하여 '청각 구분 → 이해→ 발성 연습 → 교정'과 같은 단계로 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각 구분 단계는 목표어인 한국어 모음과 자음의 발음을 도입하며 제시하는 단계로 볼 수 있 다. 단모음, 이중모음, 자음, 겹자음을 4 가지 학습 내용으로 나눠 학습을 시킨다. **이해 단계**는 각 해당 학습 내용에 따라 개별의 조음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다른 음과 차이점 을 인식하게 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교사의 발음 동작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발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베트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시킨다. **발성 연습 단계**는 학습자가 실제로 발음하고 발음을 연습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이 들은 발음을 모방해 보고 습관 형성이 되도록 반복해서 훈련한다. **교정 단계**는 학습자의 오류가 무엇인지 분석하여 지적해서 학습자의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잘못된 발음을 교정하는 단계이다.

먼저 대부분의 한국어 자음-모음의 음가가 베트남어에도 존재하고 베트남 학습자들이 상대적으로 쉽고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에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는 음가가 친숙해서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자음-모음을 제시하고 청각적인 구분 연습을 시킨다. 개인적인 음소의 발음을 연습 단계가 끝나면 어휘와 문장의 청취 훈련으로 음을 가려냄으로써 정확하지 않은 발음을 찾아내게 하는 훈련할 수 있다.

다만, 한국어 발음 교육할 때 앞에서 말했듯이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할 상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어 화자들도 무시하는 음의 구별을 학습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강현화 외, 2014). 즉, /ㅔ, ㅐ/, /ㅖ, ㅒ/, /ㅚ, ㅙ, ㅞ/ 와 같은 발음들이다.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미세한 발음의 차이를 가르친다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들이 분명히 다른 소리이지만 한국인들이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모음과 발음 교육에 대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먼저, 발음교육에 있어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사는 최소한 학습자 모국어의 자음-모음 체계와 음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학습자 모국어의 음성적인 특성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대조를 하여 학습자가 한국어 자음-모음을 발음할 때 몇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글 자음-모음 및 발음 교육 방안과 관련하여 논의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다. 앞으로도 한국어 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VI. 참고문헌

[1] 강현화 외 (2014),『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2] 김중섭 외 (2004), 『한국어 초급 1』, 경희대학교 출판국.

[3] 김진호 (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개론』, 박이정 출판부.

[4] 박덕유 외 (2013), 『한국어문법의 이론과 실제』, 박문사 출판부.

[5] 이주행 (2013), 『어문 규범의 이해』, 보고사 출판부.

[6] 허용 & 김선정 (2013), 『대조언어학』, 아카넷 출판부.

[7]

PHƯƠNG ÁN DẠY PHÁT ÂM NGUYÊN ÂM, PHỤ ÂM TIẾNG HÀN TRÌNH ĐỘ SƠ CẤP CHO NGƯỜI VIỆT

Phan Hoàng Tri Thức

TÓM TẮT—Bài viết này đề xuất cách dạy phát âm nguyên âm và phụ âm tiếng Hàn cho người mới học tiếng Hàn tại Việt Nam. Việc dạy cách phát âm cần được tiến hành một cách có hệ thống và chuyên nghiệp hơn khi hướng tới đối tượng là người học tiếng Hàn sơ cấp. Để đạt được điều này, giáo viên ít nhất phải có hiểu biết về hệ thống phụ âm, nguyên âm và âm vị trong ngôn ngữ mẹ đẻ của người học. Điều này là cần thiết để chúng ta có thể thấy được những điểm tương đồng và khác biệt giữa tiếng mẹ đẻ của người học và tiếng Hàn, đồng thời tìm cách để người học có thể tiếp cận tiếng Hàn dễ dàng và hiệu quả hơn bằng cách phân tích các đặc điểm ngữ âm của ngôn ngữ mẹ đẻ của người học.

Từ khoá – người Việt Nam, phụ âm, nguyên âm tiếng Hàn, biến thể ngữ âm, phát âm, giáo dục.

Phan Hoàng Tri Thức

2015 년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대학교(HUFLIT) 졸업

2018 년 영남대학교 한국학과 졸업

2022 년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22 년부터 호치민시 외국어 정보대학교 (HUFLIT)에서 동방학부 한국어 전임 강사

연구분야: 정치, 사회 변화